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282 호 [주제 제 26156 호] 주제 107 (2018) 년 10 월 9 일 (화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인민군 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

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1돐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상에 인민군

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꽃바구니를 진정

하였다.

만수대 언덕으로는 학월

한 사상과 불면불휴의

명도로 조선로동당을 백전

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으며

혁사의 종업원 시련을 끊고

혁명과 건설을 주체의 한

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

리움을 암은 군중들의 물

결이 끌없이 굽이쳤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통상 앞

당, 무역, 청원기관, 사회단체,

인민내부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로 된 꽃

정되었다.



인민내부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로 된 꽃

정되었다.

군중들은 우리 당의 창건자, 조선의 영원한 대양이 신하였다.

진실자 이시며 사회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을 암고 절세위인들의 통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김일성종합대학,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수도의 어버渚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상들에도 그려움의 대하가 걸쳐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통상들에 인민군부대, 기업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전정되었다.

각지 인민군 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통상과 태양상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

【조선중앙통신】

에 놓여 있었다.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적극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조선혁명박물관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의 영광찬란한 혁명역사가 짐대성원

태양조선의 대국보관으로 꾸리는데

이마지지할 충성의 마음을 더워지도록

하였다.

내각사무국 산하단위 조금청년동맹위원회

회 미서 최충심은 철천직보법으로 청년동

맹원들을 당정책관찰에로 불러일으키면서

주체조선의 만년국보를 및내이는 사업에

적극 기여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았

은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

명정통교양의 대전당을 훌륭히 천번시키는

사업에 헌신하고 있다.

내각사무국 산하단위 부원 박철현은 혁

명정통교양의 대전당을 훌륭히 천번시키는

사업에 헌신하고 있다.

지난 기간 혁명사적사업에 순결한 광

열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보심을

갖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표창장을 수상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 위대한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주대되신 역사의 그날로 부릅니다.

공화국창건 7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고 새로운 승리의 향미로에 걸출한 노도적 나아가는 계통적인 시기에 이날을 맞이한것으로 하여 인민의 가슴은 더욱 새롭게 끌어안았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이 있기에 우리는 존엄한 혁명의 언덕들을 넘고 넘겨 광활한 미래가 바라보이는 승리의 도약대우에 세계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은 조선로동당을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강화발전시키고 우리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결출한 령도자이시며 희생의 정치원로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우리는 얼마나 영광입니다.

길을 걸어왔던가.

길세워인의 고귀한 활동생을 되새기며 역사의 노를 저어 가느라며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의 심정을 펼쳐 나보기는 묵은 당기록에 담으시며 하신 뜻깊은 교시가 메아리쳐온다.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

비로 그때부터 우리 당은 코나큰 팔력과 압동의 승리를 얻고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환기를 펼치게 되었다.

1960년대 중엽 전당과 온 사

회에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이 짜차남치도록 하시기 위하여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기 위한 준비사업에 크나큰 심혈을 바쳐오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령처럼 령도밀에 전당파은 사업을 김일성주의 회화

기 위해 정연한 투쟁을 1970년대와 1980년대가 눈부시게 훌려갔다.

20세기 문학에 출혁명의 장엄한 속도, 속도전의 기상으로 더욱 한 사회주의 대전설전투의 빛나는 승리로, 80년대 속도창조의 불길속에

더욱 강화된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을 위해 한 장군님의 령도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순간 온 장내가 떠나갈듯 박수갈채가 터져왔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이끄시고 조국과 혁명에 쌓아온 가치를, 스스로 조선로동당기가 어떻게 역사의 풍물에서 번영할지 세세하게 휘둘리는가를 실체함으로 목격하였다.

1990년대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혁명의 뿐만 아니라 그처럼 것은 밟아다니면서 우리 당에 어떻게 사회주의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가는지를 풍물에서 번영할지 세세하게 휘둘리는가를 실체함으로 목격하였다.

정체에 간고하겠던 시련의 나날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털털한 행동으로 우리 당이 어떻게

사회주의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가는지를 풍물에서 번영할지 세세하게 휘둘리는가를 실체함으로 목격하였다.

이번 역사의 풍물은 조선로동당기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어디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비극적 사태에 대처하여 사회주의 진실과 혁명적 진실에서 떠나고자 할 원칙적 문제들을 파악적으로 밝힌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 역작들은 우리 인민이 영원히 떠나고자 할 전두적기로 되었다.

제국주의자들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자주적인 인민, 자주적 균형으로 사느냐를 판가름하면 그 시기 선군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40돐을 맞이한 2월의 명절이었다.

그날 당시 국가의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이 걸은 고난과 시련에 찾던 역사를 간회깊이 고교하시면서 우리 당이 오늘처럼 순결한 당으로 될수 있

은것은 절대로 김정일동지의 덕이

라고 고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당은 당시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혁명적당으로, 인민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당, 당과 인민이 통일된 불에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킨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하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이제부터 우리 당의 령도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이끄시고 조국과 혁명에 쌓아온 가치를, 스스로 조선로동당기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어디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비극적 사태에 대처하여 사회주의 진실과 혁명적 진실에서 떠나고자 할 원칙적 문제들을 파악적으로 밝힌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 역작들은 우리 인민이 영원히 떠나고자 할 전두적기로 되었다.

제국주의자들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자주적인 인민, 자주적 균형으로 사느냐를 판가름하면 그 시기 선군

의 가치를 더욱 높이 추구드시고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불변불후의 표고를 바쳐신 위대한 장군님,

철령과 오성신, 초도를 비롯한 사

연길은 지명들은 우리 인민군대를 당의

사장으로 단장악되고 당의 병도

별없이 충실했던 혁명적당으로,

선군혁명의 밀을 치른 척후대, 억척의

지지점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신의 자속을 뜨겁게 새겨주고

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역사의

교시와 함께 힘을

나누어주시면서 우리

당과 인민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앞길은 풀없이 휘황찬란하다.』

본사기자 최충성 제작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월심단결은 장군님께서

돌려주신 가장 귀중한 혁명유산이며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입니다.』

주제 98(2009)년 10월 8일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죽어난 12돐

이 되는 날이

되었다.

뜻깊은 날의 교귀한 가르침

이 되는 날이

되었다.

뜻깊은 그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총ango

를 미리 알았습니다.

내가 우리 당을 평도하여 시대와 혁명, 조국과 민족앞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릴수 있는것은 동지들이

번창이 없다고, 인민군부대들이나 공

경과 능률에 가보아도 우리 인민들

은 빙도자들이 물들이 신뢰하고 따르고 있으며 자신께서 바라는것이라면 물과 불속이라도 서슴없이 뛰어들어 해제끼고 있다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데 시면 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늘 말하는것

이지만 우리 인민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 군대도 좋고 로동계급도 좋다고, 자신께서는 지금 인민력을

받고 있다고 궁지에 넘쳐 교시하시였다.

그데 시면 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당파

단결은 우리 혁명의 천지대본이

되고자 했던 당과 민족자주당이

나를 진심으로 말들고 성실성의로 도

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조국과 혁명 앞에 길이 및 날

을 걸어온 것입니다.

우리 일군들은 자리를

갖고 있다가

당과 민족자주당이 되어온 것입니다.

우리 일군들은 자리를

갖고 있다가

당과 민족자주당이 되어온 것입니다.

우리 일군들은 자리를

갖고 있다가

당과 민족자주당이 되어온 것입니다.

우리 일군들은 자리를

갖고 있다가

당과 민족자주당이 되어온 것입니다.

우리 일군들은 자리를

갖고 있다가

당과 민족자주당이 되어온 것입니다.

우리 일군들은 자리를

갖고 있다가

당과 민족자주당이 되어온 것입니다.

우리 일군들은 자리를

갖고 있다가

당과 민족자주당이 되어온 것입니다.

우리 일군들은 자리를

갖고 있다가

당과 민족자주당이 되어온 것입니다.

우리 일군들은 자리를

갖고 있다가

당과 민족자주당이 되어온 것입니다.

우리 일군들은 자리를

갖고 있다가

당과 민족자주당이 되어온 것입니다.

우리 일군들은 자리를

갖고 있다가

당과 민족자주당이 되어온 것입니다.

우리 일군들은 자리를

갖고 있다가

당과 민족자주당이 되어온 것입니다.

우리 일군들은 자리를

갖고 있다가

당과 민족자주당이 되어온 것입니다.

우리 일군들은 자리를

갖고 있다가

당과 민족자주당이 되어온 것입니다.

우리 일군들은 자리를

갖고 있다가

당과 민족자주당이 되어온 것입니다.

우리 일군들은 자리를

갖고 있다가

당과 민족자주당이 되어온 것입니다.

우리 일군들은 자리를

갖고 있다가

당과 민족자주당이 되어온 것입니다.

우리 일군들은 자리를

갖고 있다가







